

대형 방제선 엔담호, 강릉 가뭄 긴급 지원 나선다

- 강릉 지역에 1,000t 규모 긴급 급수 지원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심각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형 방제선 ‘엔담호(5,566톤급)*’를 활용한 긴급 급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엔담 : ‘사방을 둘러싸은 담’을 뜻하는 순우리말

강릉 지역은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가뭄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형 방제선 ‘엔담호’를 투입해 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엔담호’는 총톤수 5,566톤 규모의 대형 방제선으로, 저장탱크를 활용하여 1,000톤(소방차 80대 분량)의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엔담호’는 시간당 250t의 물을 신속하게 배수할 수 있으며, 9월 9일(화) 17시경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릉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히 힘을 모았다”라며, “강릉시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280)
		담당자	사무관	곽재욱 (044-200-5281)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상훈 (044-200-5283)
		책임자	처 장	황인서 (02-3498-8591)
	해양환경공단 방제기획처	담당자	과 장	김종훈 (02-3498-7147)

참 고

대형방제선 엔담호 자원

- ☐ 선 명 : 엔담호 (엔담, '사방을 둘러쌓은 담'을 뜻하는 순 우리말)
- ☐ 선박규모 : 총톤수 약 5,566톤 (길이 104m×폭 20.6m×깊이 8.3m)
- ☐ 승선인원 : 총 30명 (승선 22명, 예비 8명)
- ☐ 최대선속 : 13노트 이상(4,000kw×2대)

< 관련 사진 >

